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65호

I 블루베리 말레이시아 시범 수출

II 지역 유망 연천 단호박 수출 확대

III 대미 파프리카 수출검역요건 완화

IV 국민이 생각하는 수출확대 품목 '배' 선정



농수산물 수출 Zoom In 65호 2019. 8. 23(금)

‘19.7.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55.4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7.1% 752백만불	  0.7% 3,292백만불	  6.0% 1,497백만불
+ 인삼류, 김치, 닭고기 - 파프리카, 배, 유자차	+ 커피조제품, 라면, 쌀가공식품 - 궤련, 음료, 제3맥주	+ 김, 굴, 고등어 - 참치, 넙치, 전복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div style="background-color: #f8d7da;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중국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생활 연계 한국 종합 식품 판촉(~9.30) ▶ T-moll 연계 한국 종합 식품 온라인 판촉(~10.30) 927백만불(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60%), 라면(13%) ▼ 설탕(△32%), 넙치(△17%)
 <div style="background-color: #fff3f3;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미국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 월마트 등 연계 건강 음료 판촉(~9.30) ▶ 대형마트 연계 양파, 마늘 등 채소류 판촉(~10.20) 655백만불(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13%), 김(12%) ▼ 인삼류(△28%), 라면(△5%)
 <div style="background-color: #fff3f3;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일본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큐오아시스 등 연계 한국 종합 식품 판촉(~9.15) 1,258백만불(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궤련(8%), 김(5) ▼ 참치(△18%), 파프리카(△5%)
 <div style="background-color: #d1ecf1;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ASEAN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Bic-C 연계 음료류 판촉(~10.27) 1,052백만불(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기(23%), 라면(4%) ▼ 참치(△8%), 음료(△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류(7%), 맥주(2%) ▼ 궤련(△8%), 딸기(△3%) 	<div style="background-color: #fff3f3;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홍콩 </div> 246백만불(△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송이버섯(4%), 음료(4%) ▼ 참치(△17%), 인삼류(△2%) 	<div style="background-color: #d1ecf1;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EU </div> 328백만불(△8.7%)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19. 1. 1 ~ 7. 31



“ 양파 ”

◇ 다양한 수출지원사업(물류비 지원, 해외 판촉, 박람회 등)으로 대만, 베트남, 말련, 태국 등 신규 수출국 확대

10,748천불(1212.0%)

▶ 주요 수출국 : 대만(7,532천불, 1,357.6% ↑), 베트남(1,064, 27,247.4), 말련(745, 341.4), 태국(632, 573.1), 미국(362, 15,595.0)

“ 커피조제품 ”

◇ 새로운 시장(호주, 중국)으로 커피 에센스 수출
 ◇ 태국, 중국, 이스라엘의 한국식 커피 믹스 인기 지속



▶ 주요 수출국 : 인니(23,617천불, △3.2%), 중국(19,809, 26.9), 러시아(17,937, △25.0), 이스라엘(11,383, 20.8), 호주(9,855, 87.1), ... 태국(3,647, 63.7)

154,930천불(7.0%)



“ 굴 ”

◇ 일본, 중화권의 굴 생산량 감소로 대형 유통 매장 중심으로 캔 형태 포장 굴 수출 증가

55,859천불(11.8%)

▶ 주요 수출국 : 일본(26,974천불, 12.9% ↑), 미국(13,239, 23.7) 홍콩(5,633, 28.0), 중국(3,371, △20.9), 대만(1,700, 19.2)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블루베리 말레이시아 시범 수출

농촌진흥청은 블루베리 3가지 품종(오닐, 스타, 에메랄드)을 말련에 시범 수출하였다. 지금까지 블루베리 수출시 부패와 물러짐 등으로 품질 상태가 나빠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시범 수출은 선도 유지 기술(미세 유공 필름으로 싸고 흡습지와 유황 패드를 처리)을 적용한 결과 부패 발생은 전혀 없었다.

또한, 선적부터 통관까지 약 3주 이상 수송 기간에도 약간의 물러짐 정도(17%)만 발생하여 상태와 품질이 우수하였다. 현지에서는 미국산에 비해 선별이 잘 되고 맛이 좋다는 평과 함께 3일간 60 박스 완판하고 재구매를 요청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오닐, 스타와 같은 단맛이 강한 품종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다.

향후 품종별, 수확 시기별, 유통 기간별, 선도 유지 기술 처리 방법별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매장 전시>



<소비자반응 조사>

지역 유망 연천 단호박 수출 확대

농촌진흥청은 연천군과 8월 7일 임진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단호박 해외 수출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연천군은 지역 특성상 일교차가 커 여기서 재배된 단호박은 육질이 단단하고 품질이 우수하여 큰 인기가 있다. 2018년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일본과 홍콩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였다. 이번에 수출되는 단호박은 슈퍼마켓, 샐러드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

* ('18년) 72톤, 7800만원 → ('19년 계획) 200톤, 1억 6000만원(2.05배↑)

농촌진흥청은 단호박 수출 확대를 위해 재배부터 수확 후 관리, 안전성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집중 컨설팅과 지역 수출 유망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보급 사업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연천군과 협업을 강화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최고품질의 단호박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단호박 수출 기념>



<전시물 관람>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대미 파프리카 수출검역요건 완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과의 검역 협상을 통해 수출단지지정, 온실재배, 재배지검사 등의 요건으로 '06년에 대미 파프리카 수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온실 내 환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방충망 크기로 인해 환기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검역본부는 그동안 망 크기를 늘려달라는 검역 요건 완화 협상을 진행해 왔다. 마침내 미국 규정이 완화(0.6→1.6mm) 됨에 따라 검역본부는 즉시 관련 생산자단체에는 우선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관련 고시를 개정 중에 있다.

'19년 미얀마 식물검역관 초청 훈련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7.1~11.(11일간) 김천, 부산 등지에서 미얀마 식물검역관 4명을 초청하여 연수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업은 검역본부가 '06년부터 아시아지역의 식물 위생 능력 함양과 국제기구 활동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해 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14년부터 미얀마를 2차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출입 식물검역 및 훈증소독 등 현장 실습을 통해 검역과 소독 중심 실무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참가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훈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이 생각하는 수출확대 품목 '배' 선정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확대가 필요한 신선농산물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형태의 1단계 '생각의 탄생'에서는 수출확대가 필요한 품목 1위로 배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현재 2단계 '국민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접속, 검색어로 '신선농산물'을 검색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출 확대가 필요한 신선농산물은?' 이라는 생각함에 수출확대를 지원할 검역적 방안에 대해 많은 댓글을 남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대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출 확대가 필요한 신선농산물은?

10 0 2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